

최종보고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정책성등급조사 결과보고서

2023. 7.

< 요약 >

1. 행사 개요

- 행사 명: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 개최시기: 2025년 9월 20일 ~ 10월 19일(30일간)
- 개최장소: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
- 주요행사: 전시(주제전시, 산업전시, 특별전시, 체험전시, 상설전시), 학술회의, 공연이벤트
- 행사목적: 1)국가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정책 추진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 인지도 제고
2)글로벌선도기업, 선진기업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한 한방천연물 산업의 발전 비전 마련
3)지역 천연자원을 활용한 한방천연물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세계시장 선점
4)한방천연물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 참여 목표
 - 총 152.8만 명 관람객(외국인 4.4만 명), 30개국 250개 기업(해외 50개)
- 행사 주체: 충청북도 및 제천시
- 소요 예산: 138억 원(국비 41.4억 원, 지방비 55.2억 원, 자체수입 41.4억 원)

2. 정책성 분석

가. 행사 개최의 공익성

① 국익과 공익 기여

- 세계적으로 천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약품과 기능성 식품 등이 개발되고, 시장 규모도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행사의 개최는 국익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계 천연물 시장은 2019년 기준 2,370억 달러, 2017~19년 동안 연평균 14.1% 성장(Markets & Markets 조사자료), 코로나19 이후 시장규모의 비약적 확대 전망
- 우리나라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해 2000년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01년 제1차(2001~05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 현재 제4차(2020~24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추진 중
- 국내 천연물 신기술 개발과 천연물의약품 등 관련 제품 글로벌화 추진의 동력 제공, 지역 천연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기반 마련 등 기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 한방천연물산업의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 전국민 61.2%, 지역주민(제천) 66.3% 긍정 응답
-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 기여
 - 3개 연관 국정과제에 대한 본 행사의 기여 가능성에 대해 전국민 52.2~63.8% 긍정 응답
- 행사목적의 국익·공익적 기여: 4개 행사목적에 대해 62.4~69.1% 긍정 답변
- 긍정적 효과의 범위: 전국 30.4%, 충북 27.1%, 전세계 19.5%, 제천 18.8%

주: 응답자수는 전국민 1,000명, 지역주민 300명

②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 국내외 관련 기업,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 관람객, 외국인 관람객 등 행사 참여자의 유형에 따른 요구사항, 산업 및 소비 패턴의 변화, 한방천연물 키워드 등에 관한 사전 분석에 근거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한바 개최 목적의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한방천연물의 글로벌화: 엑스포 참가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리테일 기업 간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현장방문 프로그램 실시, 세계 한방천연물 데이 행사 개최
- 교류 및 협력(기술융합 및 교류) 증진: 엑스포 참여 관련 기업 교류행사 추진, 국제식이보충제연맹(IADSA) 연례회의 유치·개최, 한방천연물 관련 국제·국내 회의 개최, 교육 세미나 실시
- 브랜드화(브랜드리더십 확보): 분야별 전시관 조성을 통한 기업 브랜드 홍보, 소비자 인지도 제고, 관련 기업 교류 증진 도모, 기업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장 내는 물론 제천 전역을 연계한 각종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 프로그램별 행사 개최 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국민 인식
 - 주제전시 59.0%, 산업전시(전시/시연) 62.7%, 산업전시(국제교류) 57.3%, 특별전시 55.8%, 체험전시 69.5%, 상설전시 55.2%, 학술회의 48.9%, 공연/이벤트 58.8%, 온라인 VR 엑스포 53.5% 긍정 응답

주: 응답자수는 전국민 1,000명

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 본 행사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스마트특성화 및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118번, 산업부 소관) 추진과 연계
 - 충북의 경우 산업부가 2020년에 추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전국 55개 산업거점 선정)에서 바이오헬스(천연물)를 포함한 4개 산업이 선정되고, 2021년의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이 선정됐는바, 충북·제천이 추진하는 이 행사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지역산업진흥(천연물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
 -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118번(산업부 소관)의 주요 정책 중 ‘(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등’과 연계

④ 주관기관 중장기정책과의 연계성

- 본 행사는 충청도 및 제천시가 추진하는 천연물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계
 - 충청도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과 「2030 천연물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통해 ‘세계 천연물산업 중심지 도약’ 및 ‘제천을 중심으로 천연물 클러스터 구축 및 충북 전역으로 확산’ 등의 천연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바, 충북·제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 행사는 이러한 정책에 부합
 - 제천시가 추진하는 「2040 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잘살고 머물고 싶은 웰니스 기반의 천연물산업 관광도시 구현’), 「한방천연물특화도시 2030 프로젝트」(‘풍부한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기반 선도기업 육성’)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나. 행사 계획의 우수성

①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

- 행사계획에서 개최시점 및 필요성, 내외국인 유치계획, 홍보계획, 과거 유사 행사 경험 반영, 시설물 활용 계획 등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
 - 과거 주관기관이 개최했던 유사행사 경험을 반영하여 행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고, 행사 종료 후 시설물의 중장기적 활용도 포함
 - 내외국인 유치에서 한방천연물 관련 기업·바이어 타겟 설정과 맞춤형 유치 등에 역량을 더 집중시킨다면 행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② 개최시점 적절성/필요성/중복성

- 제천시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연물산업 클러스터가 2025년 초에 조성될 예정으로 천연물산업 성장동력에 탄력을 받기 위해 행사 개최시점을 2025년으로 결정한 것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천연물산업 클러스터가 완성되어감에 따라 해당 클러스터와 인근 산업단지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단계적으로 이전 및 확장할 가능성이 있어, 본 행사가 이들 기업에게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정보 및 기술 교류, 판로개척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25년 개최의 적절성, 미개최시 유사행사 필요성

- 전국민 60.3%, 제천 83.3% 긍정 응답, 전국민 74.5%가 미개최시 유사행사 개최 희망

주: 응답자수는 전국민 1,000명, 지역주민 300명

- 본 행사는 주제에서 다른 행사를 포괄, 이에 따라 유사 행사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 존재
 - 2025제천(한방천연물) vs. 2021함양(산삼, 향노화), 2022괴산(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친환경농업), 2023산청(전통의약, 한방향노화)

③ 내외국인 유치 현실성

- 내외국인 유치계획은 유치 목표와 전략, 참가대상자 구분(산업비즈니스 참가자와 일반관람객), 국내외 선도기업 및 바이어 유치를 위한 맞춤형 계획, 집중유치 국가 등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
 - 국제행사로 장기간(30일)에 걸쳐 개최되므로 SWOT분석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상품수출, 기업유치 등 산업교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사전 수치목표 설정과 함께 한방천연물 관련 기업·바이어의 유형별·기간별(3~5일) 구체적인 타겟 설정, 맞춤형 유치 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

④ 홍보 적절성

- 홍보목표 및 기본방향이 행사의 개최목적에 연계해 설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단계별/대상별/매체별/권역별 홍보전략 등 홍보계획이 세밀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홍보 및 유치 부문에는 전체 행사비 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28.1억 원, 총사업비의 20.35%)이 투입될 예정인바, 이 행사가 국제행사인 점을 감안해 외국인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전략에 집중할 필요

⑤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

-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서 제기된 문제점(관람객 혼잡 방지,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주제에 상응하는 식음 기회, 인근지역과의 연계 등)을 본 행사에 반영
 - 관람객 혼잡 방지: 주차장 확충, 비혼잡 지역으로의 동선 유도, 행사장 외부 주변 거리 공연 실시, 셔틀버스 배차시간 조정 및 하차 위치 조정 등을 이용
 -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이색美 선발대회」, 다양한 공연행사(타악 퍼포먼스, 색깔정원 피크닉, 마술쇼, 어린이 버블버블 등), 각종 한방천연물 체험 프로그램(땅 속 깊은 곳 한방천연물 보물 찾기, 도전! 한방천연물 골든벨 등), 여러 가지 천연물 만들기(볼펜, 화석액자, 악세서리, 인형 등) 등

- 주제에 상응하는 식음 기회: 「내가 만드는 3분 한방천연물 밀크티」, 「한방 천연물 아이스크림 체험」, 「한방천연물 건강 김밥만들기」, 「한방천연물 2025 비빔밥 만들기」 등
-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강화: 「시군의 날, 세계 한방천연물 데이」, 「취업·창업 박람회」, 「북부권관광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공동 홍보부스」를 통해 지역의 특징, 볼거리, 관광상품, 특산물, 기업체 소개

⑥ 시설물 활용 계획 합리성

- 본 행사는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의 시설물을 주로 이용할 계획으로 영구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지 않고, 대형텐트구조물(TFS) 등 임시시설물과 임시화장실 등만 조성
- 상설전시와 안전체험은 기존 시설물 이용, 학술회의는 인근 기관과의 시설 협조
- 행사 종료 후 잔존시설물은 제천시와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가 매년 개최하는 제천한방바이오산업박람회에 활용

다.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① 연계성 및 접근성

- 제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약도로 한의약 및 천연물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역사·문화·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
- 명종실록, 여지도서(조선 영조) 등에 따르면 제천은 다양한 고품질 약재(황기, 더덕, 황정, 두충, 오가피 등)의 산지로 유명하며, 이공기, 원지상 등 유명한 의약 인물 배출
- 제천 약령시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부터 국내 약재 거래 중심지로 성장, 제천시에 따르면 전국 국내산 약초 유통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정부는 2005년 제천약초시장 주변과 한방엑스포 공원 일대 등을 제천약초 웰빙특구로 지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본 행사와 충북(제천) 간 역사·문화·지리적 연관성에 대해 전국민 66.2~70.5% 긍정 응답

주: 응답자수는 전국민 1,000명

- 대중교통의 경우 수도권과 충북, 강원, 경북 북부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은 좋은 반면, 영남권(경상북도 북부지역 제외)과 호남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은 좋지 못한 상황
- 인천공항-제천 간 운행되는 공항버스는 없기 때문에 원주, 충주 등 인근 시를 경유, 청주공항의 경우 공항버스는 없고 기차(청주공항역)를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충북 제천의 접근성에 대한 전국민 인식: 긍정 30.3%, 중립 43.0%, 부정 24.0%

주: 응답자수는 전국민 1,000명

② 과거 유사행사 성과 및 인프라 확보

-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참가기업 수, 관람객 수 초과 달성, 현장판매 및 수출 254억 원 기록,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가기업 수, 관람객 수, 수익금 소폭 초과 달성, 현장판매 및 수출 108억 원 기록
- 본 행사의 개최지인 제천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연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고, 과거 유사 국내외 행사가 개최된 바 있어 양호한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
 - 구축·운영 시설: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 한방생명과학관(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한방마을(이상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산업 1관, 한방산업 2관, 한방산업 3관(이상 바이오벨리 내), 천연물산업 1관, 천연물산업 2관(이상 제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 구축 중 시설: 천연물산업 3관(2023년 완공 예정), 천연물 지식산업센터(2024년 완공 예정),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2025년 완공 예정)(이상 제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 행사장 인근 주차장은 2017제천행사(12만㎡)에 비해 2배(25만 ㎡)이상 확보

③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

- 충청북도는 2022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5회 사업건의·협의(3회는 출장 협의)를 실시, 2023년에도 행사 계획의 보완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 3회(산업통상자원부 1회, 기획재정부 2회) 협의를 진행
- 충청북도-제천시 간에도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와 공식 회의, 업무 담당자 간의 출장 협의 등이 다수 개최된 것으로 확인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2022년 8월), 충청북도 북부권발전협의회(2022년 10월), 충청북도지사의 제천시 초도순방·시민과의 대화(2022년 10월) 등에서 동 행사에 대한 협의를 실시

④ 지역주민/기업과의 협의

- 충청북도(제천)는 2022년 8월 설문조사를 통해 행사 개최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조사, 2021~23년 동안 언론보도를 이용한 홍보 및 주민과의 토론회 등 개최
 - 개최계획서 제출을 앞둔 2022년 11월 제천시이통장연합회 및 제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행사 개최계획 관련 토론을 실시하고 지역민 참여 독려
- 행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기업 현장인터뷰를 실시(2022년 7월)하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보고회(2022년 9월, 11월) 등에서 민간기업과 전문가 의견 수렴
- 다만 지역민 설문결과, 주관기관의 홍보·의견수렴 활동의 성과는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 노력 필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지역주민(제천) 22.0%가 2025년 행사 개최 추진 사실을 인지
- 행사 개최 관련 설문조사·간담회·설명회 등 참여 요청 경험 9.1%, 지자체의 행사 개최 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 14.3%, 지역주민 의견 수렴 13.7%가 긍정 응답

주: 응답자수는 지역주민 300명

⑤ 지역주민의 지지

- 지자체의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여론과는 별개로 동 행사 개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지역주민(제천) 행사 개최 추진 지지도 85.3%, 행사 목적 동의 87.7%

주: 응답자수는 지역주민 300명

라.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① 국고지원 불가피성 사유

- 주관기관의 재정여건과 가용재원의 불충분성, 행사 개최의 공익성과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면 국고지원 요청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충북도와 제천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행사·축제지출액 비율 등의 재정여건 측면에서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연간 행사·지출액 규모(2023년 144.7억 원, 충북도·제천시 합계)도 행사사업비(138억 원)를 모두 부담하기에는 한계

②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

- 이 행사의 국고요청액 41.4억 원(전체의 30%)은 유사행사인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48억, 30%),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38.4억, 30%),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45억, 30%) 등과 비교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 다만 2010년과 2017년 행사에서 국고지원 비율이 17.5%, 24.5%로 30% 이하였고, 행사 기간이 비슷한 2010년의 경우 수익이 7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5년 행사에서는 수익(41.4억 원 상정)의 추가 창출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비 및 지방비의 부담을 줄일 필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본 행사의 국고지원 필요성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전국민 인식
- 현재비율(30%) 적절 51.2%, 인상 22.4%, 축소 11.9%, 불필요 6.1%

주: 응답자수는 전국민 1,000명

3. 사업비 분석

□ (회장·전시시설) 총 56.6억 원 중 약 4.1억 원 과다계상으로 평가

- 주차장 조성비 및 조경 조성비용에서 과다 또는 중복 편성된 비용을 차감했고 계획시점 대비 유류비 변화를 고려하여 기계 관련 경비를 전체적으로 감액한 반면 표준품셈 대비 계획 단가가 과소책정된 항목은 증액

□ (공연·학술행사) 총 20.5억 원 중 약 6.7억 원 과다계상으로 평가

- 세부계획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개폐막식 관련 행사비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축소 조정했고, 학술회의를 위한 각종 여비와 초청비, 교류 비용 등을 감액

□ (홍보·조직·기타) 총 45.0억 원 중 약 8.5억 원 과다계상으로 평가

- 관람객·기업 유치 관련 비용, 광고홍보비 등에서 중복되었거나 계획서에 없는 비용을 제외했으며, 산출근거나 규정이 없는 참가국 지원금 등은 상위 항목에서 원가검토가 가능한 검토율을 적용하여 축소 조정

□ (일반관리비) 6.1억 원에서 약 5.1억 원으로 감액

- 적정 직접비에 계획서의 산출요율 5%를 적용하여 재계산함.

□ (예비비 등 기타비) 9.7억 원에서 약 1.5억 원으로 감액

- 예비비와 준재난상황긴급대응 비용으로 직접비의 7.97%를 기타비로 책정했으나, 일반적인 예비비 산출요율을 감안하여 직접비의 1.5% 적용

□ 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적정 사업비는 행사계획에 제시된 총사업비(138억 원)의 79.4%인 109억5,686만 원 것으로 추정

- 일반관리비와 예비비 성격의 기타비를 제외한 직접 사업비만을 고려할 경우 계획서 금액 대비 검토율은 84.22%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결과〉

(단위: 원)

항목	계획금액(A)	검토금액(B)	증감(B-A)	검토율(B/A)
회장·전시 시설	5,660,300,000	5,249,178,213	-411,121,787	92.74%
공연·학술 행사	2,052,500,000	1,385,581,873	-666,918,127	67.51%
홍보·조직·기타	4,502,444,149	3,653,371,956	-849,072,193	81.14%
직접비 소계	12,215,244,149	10,288,132,042	-1,927,112,107	84.22%
일반관리비	610,762,207	514,406,602	-96,355,605	84.22%
기타비(예비비 등)	973,993,644	154,321,980	-819,671,664	15.84%
총사업비	13,800,000,000	10,956,860,624	-2,843,139,376	79.40%

4. 결론

□ 본 행사의 정책성은 준수한 수준이며 행사개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내실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규정이 정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8인에 의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점은 90.6점(100점 만점)으로 도출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	배점	평점	종합평점
행사개최의 공익성	30	91.4	90.6
행사계획의 우수성	30	90.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90.9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89.8	

주: 배점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가중치로 종합평점은 배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평점의 가중평균으로 도출

□ 본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
 - KIEP 지역민(제천) 설문조사('23.5.) 결과, 응답자의 62.7%가 행사개최시 참가 의사를 보였고, 이중 단순관람 외에 홍보·판매부스 개설(8.5%), 프로그램 구성 참여(5.9%), 행사 진행요원(3.7%) 등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인 응답자(중복응답) 비중은 크지 않았음.

- 주말 수도권, 중남부지역, 주요 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 개선, 효율적인 관람 및 혼잡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 주말 KTX 운행증편 등 관람 수요를 고려한 교통 대책, 스마트폰 어플 등 IT기술을 활용한 관람객 편의성 제고 수단 마련 등
- 기업 유치의 구체적인 목표수치 설정, 미국·유럽뿐 아니라 중국·일본의 선도 기업 및 바이어 유치 확대, 외국인 관람객 수치 파악 방안 마련
- 학회 중심의 학술회의 외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대상 강연,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강화
- 추가적인 자체 수입 창출 방안 마련을 통한 국비·지방비 부담 경감
 - 2010년, 2017년 주관기관의 유사행사에서 국고지원 비율이 각각 17.5%, 24.5%였고, 행사기간이 비슷한 2010년의 경우 자체수입이 70억 원
- 안전관리, 혼잡관리, 비상상황관리 계획을 포함한 안전 계획을 더욱 구체화 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
- 행사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사 기간 숙박·음식료비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사전에 마련